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출애굽기 19장 1절 ~ 20장 21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몸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25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온 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우레와 번개가 치며 큰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백성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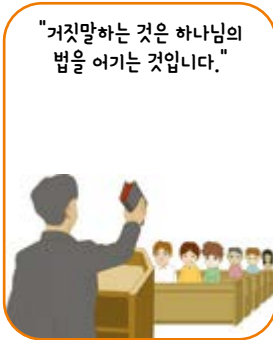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지킬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1. 어느 나라든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열 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적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난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란다. 그것을 성경에 써 놓았으니 '요한복음 13:34'를 찾아 읽어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렴."



"아~ 예수님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알아볼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의 빵집에서 한 아가씨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빵을 구워야만 했습니다. 빵 굽는 일은 그녀에게 힘든 일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빵집 주인과 아가씨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아내가 된 후에도 여전히 빵 굽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일은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란

선생님
란